

[거봉백병원 고객체험 수기공모전 대상]

그리운 아버님과 추억이 깃든 곳

최현숙

“아버님~ 지금 나가셔야 해요~”

“아가...오늘은 안 가면 안되겠나”

“의사 선생님이 매일 매일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야 빨리 나아요” 아버님과 나의 아침은 늘 이렇게 시작되었다.

뇌경색으로 오른쪽 일부의 마비증상으로 인한 보행장애와 소근육 사용의 불안정, 언어장애와 기억력 저하의 불편함을 겪고 있으셨던 아버님은 작업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잦았다.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기회를 갖기 위해, 가족들의 만류에도 나는 병원 측의 셔틀버스를 이용하였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러 나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으셨으리라...

이런 저런 핑계와 어리광으로 모면해 보고 싶으셨으리라...

하지만 고집스러운 나는 그런 아버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끝내 버스에 오르곤 말았다.

일단 병원에 도착하여 재활의학과 과장님을 만나면 화색을 띄며, 자신이 예전처럼 회복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수없이 질문하셨고 희망적인 대답을 듣고 나서야 안심하고 치료를 시작하시곤 했다.

마비증상을 완화시키는 파라핀 치료와 젓가락을 이용하여 작은 공을 옮기는 소근육 운동, 달력을 이용하여 기억력 회상을 돕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신체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받으셨다.

컨디션이 좋은 날은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었다. 하지만 가끔씩 엉망이 되버리는 날이 오기도 했다. 병원을 가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우리의 등 뒤에서 누군가 하는 말을 들으신 걸까? “어머아~그 병은 병원 간다고 낫는 병이 아인기라~ 중풍에 누가 그리 만날 천날 병원을 다닌다쿠노~~”

귀가 발개졌다. 머리가 멍 해졌다. 코끝이 시큰거리고 눈이 뜨거워졌다. 그때 큰소리로 외쳤어야 했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님의 옷자락을 잡아끌며 억지로 차에 올랐다.

그날따라 등에 업힌 둘째까지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 심하게 울었고

[거봉백병원 고객체험 수기공모전 대상]

간병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쓰고, 나는 처음으로 아버님께 짜증이라는 것을 내버렸다.

병원에 도착하여 아무 말 않고 치료 받으시는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도망치고만 싶었다. 치료를 마친 후 자주 가던 솔밭공원 벤치에 자리를 잡았다. 병원에 그렇게 훌륭한 곳이 있다는 것이 그날 나와 아버님에게는 큰 위로와 힐링이 되었다.

눈을 살며시 감으면 바람이 살랑 불어와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썼다, 애썼다’ 위로해 주는 듯 했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 소나무 가지들이 ‘괜찮다, 괜찮다’ 안심을 주는 듯 했다.

적어도 그날 아버님과 나는 그렇게 마음을 토닥여 주며 서로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을 주고받았다.

몇 번의 계절을 보냈을까...

간간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다가 결국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님을 보내 드려야만 했다.

얼마 전, 2016년 착공하여 공사를 마쳤다는 신관 투어를 하게 되었다.

눈앞에 펼쳐진 신관은 편리함과 쾌적함은 물론, 문화예술을 접목시켜 힐링의 공간까지 겸비하여 손색이 없었다.

환자보호와 감염예방을 위해 거제최초로 병동 출입통제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설명에 방문객들은 신선한 놀라움을 표현했다.

지역병원으로서 전문 의료진 영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첨단 시설과 의료장비 도입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산업 복합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시는 원무부장님의 말씀에 사명감과 자신감이 엿보였다.

아이의 건강검진으로 방문하였을 때 친절하게 응대해 주신 검진센터 선생님, 무릎 통증으로 입원하신 어머님께 따뜻하고 정성스럽게 보살피 주신 선생님, 지나는 곳마다 상냥한 미소로 인사하는 직원들을 보면 이미 최고의 병원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버님과 추억이 깃든 솔밭 공원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지만, 야외음악당으로 변신한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라본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운 아버님과 내가 그랬듯이...

[거봉백병원 고객체험 수기공모전 대상]

제 인생의 한 자락을 품고 있는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거봉백병원 고객체험 수기공모전 우수상]

무제

남경춘

나는 조그마한 슈퍼를 하고 있었다.

동네에 살던 남매가 엄마가 굴을 사왔다고, 우리 막내딸 ‘인자’와 함께 먹자고 찾아왔다.

그렇게 가게에서 친구들과 나가 놀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아이들이 나간 지 10분 정도 지났을까, 우리 아이가 차에 치었다고 동네 아주머니가 가게로 찾아왔다. 논 주변 공터에서 세 아이가 삼각으로 둘러앉아 놀고 있었는데, 후진하던 동네 트럭이 뒤돌아 있던 우리 아이를 차에 치이게 하고는 어중간하게 치었다고 도로를 200~300m까지 끌고 갔다. 우리 아이 말에 의하면 차가 자기를 박고, 차 밑에서 세 바퀴를 돌았다고 한다.

놀란 가슴을 움켜쥐고, 황급히 뛰쳐나가 덜덜덜 떨었다. 차 문을 열고 차에 타니, 그 당시 4살이었던 아이가 ‘아저씨 우리엄마가 아시면 걱정하니, 집에 데려다주세요...’하고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인자야, 아프니 말하지 말고, 절대 잠이 들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다친 부위는 머리 20~30 귀에서 귀까지 다 벌어지고 머릿속 하얀 뼈가 다 보여서 내가 입고 있던 코트로 아이 머리를 감싸고 거제 백병원 응급실에 갔다.

큰 병원으로 옮기고 싶었지만, 부상 부위가 머리인지라 움직이거나 올리면 위험하다고 하여서 옮길 수가 없었다. 더 급해지니 의사 선생님께서 여기서 치료를 해보자고 하셨다.

나는 의사선생님을 믿고 맡기기로 하고, 눈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머리만 신경 쓰다 보니 허벅지, 무릎까지 뼈가 으스러진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엄마...뭐라고 하지마 무릎도 아파’라고 했다. 그제서야 보니 다리가 부어올라 뼈가 가루가 날 정도였다. 그... 어린게 얼마나 아프겠나... 이로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 당시 평생 모아놓은 돈으로 돈은 있으니 제발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하였다.

아이는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라고 했는데 왜 죽어 나안죽어... 그렇게 되새기며 말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가 어찌될지 모르니 물이나 음료를 주지 말라고 하

[거봉백병원 고객체험 수기공모전 우수상]

섰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우리 아이가 ‘엄마 내가 아무리 물을 달라고 해도 주지 마’하고 말했다.

그러다 새벽이 되어, 아이가 목이 너무 탔는지..

엄마 물 좀... 달라고 하였다.

아이에게 물이 없으니 좀만 참으라고 하니,

엄마 가게 가면 냉장고 오른쪽에 사이다 왼쪽에 우유 있던 거 좀 달라고 할 때 내 가슴이 얼마나 메는지 누가 알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선생님께 우리 아이가 물이 너무 마시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가제수건으로라도 입을 적셔주라고 하셨다.

그렇게 고비를 넘기고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겨갔다. 다리에는 사각으로 된 큰 기계를 붙이고, 다리에 구멍을 뚫어 3~4킬로 추를 달아, 다리를 하늘 높이 고정하고, 움직일 수 없이 침대에 누워서 지냈다. 뼈가 붙을 때까지 무릎이 비틀어지면 불구가 될 수 있고, 머리에 병균이 들어가면 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낮이나 밤이나 다리를 잡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집에 갈 수도 없었고, 큰 아이들을 돌봐줄 수도 없었다. 큰 아이들도 나이가 어렸지만 동생이 걱정되어 용돈을 모아,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동생을 위해 선물을 사오곤 하였다.

아이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 소화가 될 리가 없었다. 3~4개월이 지나, 고현시장에 잠깐씩 갔다.

생선을 사서 문이 열려있는 식당에 생선을 구워달라고 부탁하였다. 감사하게도 구워주셔서 가끔 아이에게 먹였다.

나는 아기가 깁스할 때까지 음식과 물을 거의 먹지 않았다. 자식을 잘 보지 못한 죄인의 심정이었다.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무릎에서 가슴 아래까지 통 깁스를 했으니까...

의사선생님께서 엄마가 죽겠다고, 내가 꼭 낮게 해 줄테니 제발 먹고 씻으라고 하셨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여러 선생님을 돌아가면서 아이를 치료했다.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지금은 한 쪽다리가 짧을 수 있으나, 선생님 치료를 잘하면

[거봉백병원 고객체험 수기공모전 우수상]

세월이 흘러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 하셔서 희망을 갖게 되었다.

신경외과 선생님께서는 머리에 피 덩어리가 고이면 20대쯤되면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 대수술을 해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다.
노심초사 걱정 투성이었다.

항상 살아만 달라고 기도했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것 같다. 그 당시 유명했던 스쿠알렌을 얼굴과 손 흉터 등 상처에 열심히 발라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гип스를 풀고, 물리치료도 받고 머리도 아물고 하여, 선생님 보러 가니 이제 씻어도 된다고, 아기 데리고 목욕을 하고 오라고 하셨다. 깨끗이 씻고, 예쁜 옷을 입히고 감사의 인사를 하러 갔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쁜아이가 누구야 ~’ 하셔서 셋이서 웃었던 기억난다.

이제 조금만 지켜보고 퇴원하자고 하셨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거봉백병원에 살았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쳤었는지 지금 그때를 떠올려도 눈물이 앞선다.
그때 의사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딸은 자라는 동안 친구들과 잘 뛰어놀고, 큰 병치레도 하지 않고,
미스코리아보다 더 이쁘고 건강하게 자라, 그때의 내 나이가 되었다.

살아만 달라고 기도했던 딸이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더 이상 감사 할 수가 없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이를 진심으로 돌보아준 거봉백병원 모든 박사님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님 덕으로 잘 나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의 새 인생

조연화

엄마는 일이년 사이 몰라보게 쇠약해지셨다.

퇴행성관절염도 심해지셔서 재작년 가을 무렵에는 지팡이를 짚고도 잘 걷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좋아하시던 꽃구경이며 단풍놀이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었고, 집안에 앉아 감옥 아닌 감옥살이를 하셔야했다. 지켜보는 내 마음도 말할 수 없이 아팠다. 하지만 선불리 수술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연세도 많으셨고, 고혈압 외에도 여러 내과적인 문제들이 얹혀 있었다. 어느 병원도 환영하지 않았다.

갑도 많으셔서 수술을 견디고, 재활을 잘 해내실 지도 걱정이었다. 그것 때문에 언니나 오빠들은 수술을 만류하고 있었다. 우리 엄마는 그렇게 힘든 걸 해내지 못할 거라고, 수술 안한 것보다 더 못하게 될 거라고, 너무 힘들어 치매만 얻을 지도 모른다면, 그냥 사시는 날까지 참고 지내시는 게 나을 거라고 말이다.

하지만 나는 엄마가 다시 꽃구경도 가고 두 다리로 남은여생을 즐겁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근심만 쌓이던 어느 날, 간호사인 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해왔다. 경상대 정형외과에서 27년간 이름을 떨쳤던 조세현이라는 정형외과 선생님이 거봉백병원에 왔다고..... 검색해보았다.

집에서 멀기는 해도 병원의 건립과정, 이념이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도 조세현 선생님의 의술이 매우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쩌면 엄마가 수술하기에 적합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유난히도 더웠던 작년 여름 어느 날. 엄마를 모시고 조세현 선생님께 진료를 받으러 갔다. “노인들은 하루만 걷지 않아도 근력이 약해집니다. 힘들어도 하루 30분 이상 걸으십시오.” 첫 진료에서 조세현 선생님이 엄마에게 한 말이었다. 무조건 수술만 이야기하지 않고,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환자에게 제시한 것이었다. 신뢰가 갔다. 말, 표정, 말투에서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의사라는 게

[거봉백병원 고객체험 수기공모전 우수상]

금세 느껴졌다.

다시 일주일 후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그때 입원실 문제로 간호사선생님들과 통화하고, 내과로 협진을 의뢰하는 조세현 선생님을 보았다. 수간호사에게 “선생님”이라 부르더니, 어린 간호사들에게도 존댓말을 하고 내과 선생님의 소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당연히 간호사 선생님들도 환자를 웃음으로 대했다. 그런 모습은 병원 전체에 대한 깊은 신뢰를 주었다. 겁 많은 엄마가 수술을 결심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엄마는 수술대에 오르셨다. 불쌍한 우리 엄마! 얼마나 불편하고, 많이 아팠으면 수술을 결심 하셨을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수술은 아주 잘 됐다. 수술 후 통증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 잘 견디셨다. 엄마의 새 삶이 시작된 것이다.

진료실에서, 그리고 수술 후에도 그렇게 인자하시던 조세현 선생님은 수술 이틀째 아침 회진 때부터 엄해지셨다. 보조기(?)에 의지하긴 했지만, 무통도 떼지 않은 엄마에게 수술한 다리로 땅을 딛고 걷게 하신 것이다. 세상에! 겁 많은 노인인 우리 엄마가 수술한 다리로 걸으시다니! 선생님은 병실을 나와 복도까지 엄마를 걷게 하시고, 함께 따라 걸으신 후, 계속 운동할 것을 독려하고서야 다른 환자에게 가셨다.

오후에도 그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 엄마는 친절하던 의사가 무섭게 변했다며 불평도 하셨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수술과 재활이라는 걸 여러 번 해본 나는 금방 알았다. 당장 환자에게 좋은 소리 듣기보다, 환자가 반드시 재활에 성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길 바라는 의사라는 걸 말이다. 친절할 말투로 걸으라고 한다면, 어느 노인이 수술한 다리로 걸을 수 있을까? 젊은이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노인들은 의사선생님이 하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면 불평 없이 그대로 하는 순수한 분들이다. 본인이 한 수술에 대해 확신과 연륜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태도이기도 했다.

며칠이 지나자, 보조기구를 버리고 목발을 짚고 걷게 하셨다. 거추장스러운 보조기구 없이 목발을 짚고 화장실에 들어가던 날, 엄마는 아이처럼 기뻐하셨다. 겁 많은 줄로만 알았던 우리 엄마가 이처럼 용감하시다니! 존경스럽고 자랑스러

[거봉백병원 고객체험 수기공모전 우수상]

왔다.엄마는 두려움을 이기고, 복도며 병실을 목발을 짚고 걸으며 성취감을 느끼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며칠 안 되어 선생님은 목발을 한 쪽만 짚게 하셨다. 세상에! 우리 엄마에게 그게 가능했다. 목발 하나만 짚고 아주 잘 걸으셨다. 간호사선생님들도 한마음으로 운동을 도와주었다. 복도에서 걷는 엄마를 볼 때마다 응원도 해 주었다.

수술 후 2주가 되었을 때 조세현 선생님은 목발 대신 지팡이 하나만 짚고 퇴원 하게 하셨다. 엄마가 며칠 더 입원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했던 조선생님의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서 일상으로 복귀해야 재활에 성공합니다. 그래야 수술한 보람 갖고 건강하게 어디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서 봤던 부드럽고 친절한 모습이었다. 환자의 복지, 진정한 치유를 목표로 하는 그분의 의사로서의 철학이 느껴져 고맙고 감동스러웠다.

엄마는 그렇게 2주 만에 퇴원했다. 조선생님 말대로, 퇴원한 날 바로 지팡이 하나 짚고 공원을 걸으셨다. 병원이 아닌 공기 좋은 공원을 걸으니 활기가 넘치셨다. 젊은 내가 보기에 불과 2주 만에 지팡이 하나로 뽐뽐 걸으시는 게 참 신기했다. 가슴이 뭉클했다. 2주전의 엄마 모습이 거짓말 같았다. 쪽 찢은 다리 덕에 기도 한 뼨은 커지신 것 같았다.

수술 후 3주. 외래 진료일이 되었다. “자, 잘 하셨네요. 이제 지팡이도 버리세요.” 조선생님은 진료실에서 직접 걷는 법을 시범 보이셨다. 양팔을 높이 휘두르며 힘차게 걸으셨다. “이렇게 팔을 휘둘러야 근력이 붙어요.” 의사선생님이 시범을 보이며 따라하라니, 엄마는 소리 내어 웃으며 따라 걸으셨다. 조세현 선생님은 아예 병원 복도로 나가 행군하듯 걸으셨다. 사람들이 흘긋거려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마치 두병사가 사람들 속을 행군하는 것 같았다. 팔 휘두르는 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날 이후 엄마는 그렇게 젊은 사람마냥 자유로운 양팔과 두 다리로 씩씩하게 걸으셨다.

마치 20년 전의 건강한 시절로 돌아가신 듯 했다. 만류하는 오빠 언니들을 설득해서 한 수술이었다. 행여나 잘못되면 어쩌나 가슴 졸였던 시간이 떠올라, 눈물이 한바가지는 쏟아졌다. 엄마가 걷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언니오빠들에게 보냈다. 모두들 좋아 어쩔 줄 몰랐다.

[거봉백병원 고객체험 수기공모전 우수상]

그 다음 외래 진료 후 들렀던 식당이 생각난다. 바닥에 앉아 식사를 마친 엄마가 식탁을 짚고 천천히 일어서셨다. 식당 사장이 그 모습을 놀라 바라보았다. 자기 엄마는 그렇게 되기까지 수술 후 일 년이 걸렸다면 부러워했다. 나도 모르게 병원과 조세현 선생님 칭찬을 한참을 늘어놓았다. 그 후에도 조세현 선생님의 말에 따라 엄마는 부지런히 운동하셨다. 그만큼 주치의에 대한 신뢰도 강해진 것이다. 용기도 충천해지셨다. 수술을 견디고, 수술 후 통증, 두려움을 이기고 그렇게 해내셨으니, 자존감도 커지셨다. 엄마 얼굴이 오랜만에 꽃처럼 환해졌다.

어쩌면 부지런히 재활한 덕에 수술 통증도 빨리 이겨냈는지도 모른다. 생각할수록 환자의 완벽한 재활에 목표를 갖고 계속 환자를 진료하신 조세현 선생님과, 함께 하셨던 간호사님들 모두 정말 감사하다. 그분들 덕에 이번 봄에는 언니 오빠들까지 모두 함께 엄마 손잡고 그 좋아하시는 꽃구경을 두 번이나 다녀왔다. 몇 년간 보지 못했던 매화, 벚꽃을 보며 좋아하셨다. 자식으로서 정말 행복했다. 우리 엄마에게 자유와 건강한 삶을 주신 조세현 선생님과 모든 의료진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며 산다.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